<최근 기출 '수필/극' 패턴!!>

1406 윤오영, '봄' (수필)
1409 이근삼, '원고지' (극)
14수능 이상, '권태' (수필)
1506A 계용묵, '율정기' (수필)
1509A 김승옥, '안개' (시나리오)
15수능A 이태준, '파초' (수필)
15수능B 최익현, '유한라산기' (수필)
1606 이강백, '결혼' (극)
1609 한흑구, '보리' (수필)
16수능A 유치진, '소' (극)
16수능B 채만식, '제향날' (극)
1706 박이문, '눈' (수필)
1709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시나리오)
17수능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극)
1806 이곡, '차마설' (수필)
1809 ?????????? (극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면 수능에 나오겠지? 뚜앙!! 뚜앙!!)

1. 이근삼, 「국물 있사옵니다」

해제 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에 널리 퍼진 출세주의와 배금주의를 풍자하고 있다. 어리숙하지만 정직했던 상범이 세속적인 성공의 방법에 눈을 뜨면서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적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을 희극적인 언어를 통해 그려 내고 있다. 주인공인 상범이 관객을 향해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고 논평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서사극적 특성이 강하다.

주제 현대 사회의 배금주의와 출세주의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상범은 어리숙하지만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직장 초년생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와 손해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자 낙담한다. 상범은 우연히 사장의 눈에 들게 되면서 세속적인 성공의 방법인 '새 상식'에 눈을 뜬다. 이후 그는 출세를 위해 상사를 모함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장의 며느리이자 미망인인 성아미를 협박하여 그녀와 결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는 상무가 되고 사장의 직위까지 바라보게 되지만, 평범한 생복을 누리는 형과 동생을 떠올리며 비애를 느낀다.

2. 작자 미상, 「고성 오광대」

해제 이 작품은 경남 고성 지방에 전해 오는 가면극으로, 제시된 본문은 제2과장에 해당한다. 「고성 오광대」는 전체 다섯 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과장은 당시 양반의 모습과 행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다. 말뚝이라는 민중의 대변자가 등장하여 양반의 비도덕적인 삶을 풍자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가계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

전체 줄거리

이 작품은 모두 다섯 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과장 문둥 광대 과장, 제2과장 양반 과장, 제3과장 비비 과장, 제4과장 승무 과장, 제5과장 제밀주 과장으로 되어 있다. 제1과장은 양반의 자손이지만 조상들의 누적된 죄업으로 천형인 문둥병에 걸려 고통받던 양반이 신명을 통해 병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는다는 내용이고, 제2과장은 양반의 횡포와 어리석은 면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조화적 세계를 그려 내는 내용이다. 제3과장은 이 세상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는 인신 수두의 비비를 등장시켜 양반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내용이고, 제4과장은 수도 중이던 스님이 세속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선녀의 유혹에 빠져 파계한다는 내용이다. 제5과장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큰어미와 작은어미의 자식이 죽는다는 내용이다.

3.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의 예인 집단 중 하나인 남사당패에 의해 전승되어 온 인형극이다. 즉 '박 첨지', '꼭두각시' 등과 같은 인형을 대잡이가 무대 뒤에서 조종하고 그 인형의 동작에 맞추어 재담과 창을 하는 인형극인데, 제시된 본문은 박 첨지 마당 중 꼭두각시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부 처첩제라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서민들 사이에서 주로 연행되어 왔던 관계로 비속하고 적나라하며 해학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꼭두각시놀음은 크게 박 첨지 마당과 평안 감사 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박 첨지 마당은 박 첨지 유람 거리, 피조리 거리, 꼭두각시 거리, 이시미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박 첨지 유람 거리는 박 첨지가 등장해 팔도강산을 유람하다가 꼭두패가 논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며, 익살스러운 재담을 늘어놓고 유람가를 부르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조리 거리는 박 첨지의 딸과 며느리가 등장하여 뒷절 상좌중들과 어울려 놀다가, 홍동지에게 쫓겨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꼭두각시 거리는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던 박 첨지와 꼭두각시가 첩인 덜머리집 때문에 다툼을 벌이고 헤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시미 거리는 새를 쫓으러 나왔던 여러 인물이 차례로 이시미에게 잡아먹히다가, 홍동지가 등장하여 이시미를 때려잡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평안 감사 마당은 매사냥 거리, 상여 거리, 건사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매사냥거리는 평안 감사의 매사냥과 그 전후의 길을 닦고 꿩을 파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여 거리는 평안 감사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따른 장례식 광경을 보여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건사 거리에서는 상좌중들이 절을 짓고 허는 과정을 보여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4.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해제 이 작품은 잘 알려진 「온달 설화」를 모티프로 삼아, 온달 장수보다는 권력 싸움으로 인해 궁에서 축출당한 평강 공주를 서사의 중심에 둔 희곡이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 용맹하게 싸우던 고구려의 장수 온달은 공주에게 혼령으로 찾아와 공주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인물로 재설정 되어 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달과의 결혼을 감행했던 공주 역시 뒤늦게 둘의 인연이 지니는 절대성을 깨닫게 되지만, 결국 이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제시된 본문은 신라와의 전투 도중 아군에 의해 죽은 온달의 혼령이 공주에게 찾아와 자신의 죽음을 전하는 대목이다.

주제 인연의 신비로움을 받아들이고 이를 절대시했던 온달과 공주의 비극적 사랑

전체 줄거리

궁중의 암투에 밀려 대사를 따라 출가하던 공주는 잠시 쉬기 위해 들른 집이 온달의 집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린 시절 이야기의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온달이 실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고, 이어 등장한 온달을 대면한 공주는 온달의 집에 머물겠다는 뜻을 밝힌다. 온달은 공주가 지난밤 꿈속에 본 여인임을 알고 놀란다. 첫 대면으로부터 10년 후, 온달은 신라와의 전쟁에 참전 중이고 공주는 지난 10년간을 회상하며 온달의 승전보를 기다린다. 이어 온달의 혼령이 등장하여 자신이 아군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밝히고, 공주는 온달을 죽인 범인을 알고자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후 공주는 온달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궁을 떠나 온달의 집에 기거하게 되고, 자신을 찾아온 대사로부터 온달과 자신이 처음 만나기 전 온달이 꾸었다는 꿈 이야기를 듣는다. 인연의 신비함을 깨달은 것도 잠시, 공주는 궁중에서 보낸 장교와 군사들의 손에 살해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다.

5. 차범석, 「불모지」

해제 이 작품은 전 2막으로 이루어진 장막 희곡으로, 1950년대 서울 중심가를 배경으로 빌딩숲으로 상징되는 외래문화와 한옥으로 상징되는 전통문화와의 충돌로 대표되는 전후 사회의 모순을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구세대는 물론 신세대도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1950년대의 한국 사회를 상징한다. 전후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 노인 가족의 비극적인 생활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가족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그려 낸 세태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사실주의 작품이다.

주제 근대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전체 줄거리

혼구 대여점을 운영하는 최 노인은 번화한 상가에 자리한 자신의 낡은 한옥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인다. 신식 결혼의 성행으로 전통 혼례용 혼구를 대여하는 최 노인의 가업은 날로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집을 팔자고 종용하지만 최 노인은 완강히 버틴다. 제대 군인으로 실업자 신세인 큰아들 경수와 그런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 허영심 많은 배우 지망생 장녀 경애,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차녀 경운, 대학 진학을 앞둔 막내아들 경재 등 가족 모두가 각자의 현실적인 입장에 따라 갈등을 드러낸다. 결국 최 노인은 집을 세놓기로 결심하는데, 아버지가 집을 팔려는 것으로 오해한 경수가 이를 막으려 하고 이는 최 노인과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총을 들고 나가 보석상을 털려다 미수에 그치고, 뒤늦게 날아든 취업 통지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한편 배우 지망생인 경애는 심사 위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다. 형사들에게 아들이 체포되어 떠난 후 딸의 시체를 발견한 최 노인의 비통한 절규와 함께 막이 내린다.

6. 선우휘 원작 / 이은성·윤삼육 각색, 「불꽃」

해제 이 작품은 선우휘 원작의 단편 소설 「불꽃」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다. 원작 소설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제 의식이 형상화되어,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근대사의 격랑을 겪은 인물이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기까지 의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제시된 본문은 주로 현의 일본 유학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민족주의자로서 행동하는 삶을 영위했던 아버지와 달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주제 한국 근대사의 비극적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 개혁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결의

전체 줄거리

주인공 고현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로서, 3·1 운동 때 일경의 총을 맞고 뒷산 동굴에 피신하였다가 죽은 민족주의자였다. 현의 할아버지 고 노인은 아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자 현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는다. 현의 어머니는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인고의 인물로 기독교에 귀의하여 아들을 보살핀다. 현은 일본 유학 시 제국주의 찬양론자들의 주장에 불만을 품고 귀국했다가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고, 학병 탈출 후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온다.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상적 부조리와 혼란을 경험하고, 친구 연호와 이념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현은 인민재판에서 동료 여교사 조 선생의 부친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 과정을 주도한 연호를 치고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피신한다. 현의 은신처를 알게 된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는다. 투항을 권유하던 고 노인이 태도를 바꾸자 연호는 이에 분노하여 고 노

인을 사살하고, 현은 연호를 총으로 쏜 후 탈출한다. 그는 연호의 총탄을 맞고 흐려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현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7. 최석한, 「라디오스타」

해제 이 작품은 2006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 박중훈, 안성기 출연의 영화 「라디오스타」의 시나리오이다.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가수로 전락한 주인공과, 변함없이 그 옆을 지키는 매니저 간의 우정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 주고 있다. 제시된 본문은 주인공 최곤이 진행하던 지방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 양이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는 대목으로, 이 사건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된다.

주제 인생의 굴곡에서도 변치 않는 따뜻한 인간애와 우정

전체 줄거리

한때 가수왕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최곤은 대마초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별 볼 일 없는 가수로 전락한다. 20년이 지나 미사리 카페촌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하던 최곤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최곤의 매니저 박민수는 지방 방송국의 국장을 만나 영월에서 라디오 디제이를 한다는 조건으로 최곤의 합의금을 구한다. 지방 방송의 디제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성의하게 방송을 진행하던 최곤은 다방 종업원 김 양을 즉석 초대 손님으로 부르는데, 김 양의 사연이 예상과 달리 큰 호응을 얻고 영월의 명물로 자리 잡는다. 점차 인기를 더해 가던 중에 서울의 대형 기획사에서 최곤을 스카우트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매니저 박민수와 결별하게 된다. 하지만 최곤은 박민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며 박민수와 재회하게 된다.

8. 오영진, 「허생전」

해제 이 작품은 오영진의 후기 희곡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양반 사회를 비판한 박지원의 단편 소설 「허생전」과 채만식의 「허생전」을 골격으로 창작되었다. 주인공 허 생원의 상행위를 통해 부국이민(富國利民)의 경제 사상과 건전한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허 생원을 제외한 등장인물들이 희극적으로 그려져 허생원의 인품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주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 개혁 의지

전체 줄거리

• 제1화: 돈으로 양반을 산 운종가 변 부자의 집에 허 생원이 찾아와 일만 냥을 빌려 간다.

• 제2화 상장: 허 생원이 변 부자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왕실에 쓸 물건이 떨어지자, 내수사 전수 박몽인이 관군을 앞세우고 허 생원에게 물건을 사러 온다. 허 생원은 박몽인의 흉계를 누르고 10만 냥의 비싼 값에 과일을 판다.

• 제2화 하장: 박몽인은 도둑들을 동원해 허 생원의 돈을 빼앗으려 하나 실패하고, 오히려 도둑들은 허 생원에게 감화되어 백석도로 간다.

• 제3화 상장: 백석도로 간 허 생원은 그 섬의 사또를 감화시켜 고을을 떠나게 한 후, 그 섬에 널려 있는 대리석을 캐어 부를 축적한다.

• 제3화 하장: 변 부자와 함께 이완 대장이 허 생원을 찾아온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허 생원은 백석도를 떠나 자취를 감춘다.

9. 이윤택, 「오구 - 죽음의 형식」

해제 이 작품은 노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가족의 모습과 세속화된 저승사자들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희곡이다. 노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소재를 오구굿이라는 제의의 형식으로 풀어내어 한국적인 죽음의 형식을 해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굿의 하나인 오구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극의 놀이적 성격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전체 줄거리

낮잠을 자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을 만난 노모는 아들에게 저승 갈 준비를 해야겠다며 굿을 해 달라고 조른다. 무당

석출이 와서 굿판이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명 나게 놀던 중, 노모는 죽음을 맞이한다. 온 집안이 장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저승사자들이 나타난다. 맏상주와 둘째 상주가 유산을 두고 다투자 죽은 노모가 다시 살아나 아들들을 혼내 준다. 초상집의 밤이 깊어 가면서 초상집은 화투가 벌어지는 난장판이 되고, 새벽닭이 울자 노모를 비롯한 모든 등장인물이 노래를 부르며 막이 내린다.

10. 장진, 「소나기는 그쳤나요?」

해제: 이 작품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년의 가슴 시리고도 투명한 첫사랑과 사랑이 떠난 후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시나리오이다. 소설 「소나기」 의 뒷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른 창조적 재구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성숙의 과정

전체 줄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은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답답해한다. 어느 날 소년에게 소녀의 할아버지인 윤 초시가 찾아와 소녀의 유품을 전해 준다. 소년은 소녀의 일기장을 읽고, 소녀의 병원 친구였던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서울로 간다. 소녀를 대신해서 생일 축하를 하고 온 소년은 소녀의 무덤에 돌을 쌓아 비석을 만들어 준 후에 소녀에게

일기장을 본 이야기와 서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 소년은 소녀의 환상을 보고 무덤에 눕고, 그 위로 소나기가 내린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여학생이 전학을 오고, 그 여학생은 소년에게 관심을 보인다. 여학생이 냇가 징검다리에서 소년에게 조약돌의 이름을 묻자 소년은 그 여학생을 물에 빠뜨리고 달려간다. 소녀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 소년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아픔을 이겨 나간다.

11. 천승세, 「만선」

해제: 이 작품은 바다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며 만선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어부의 집념과 그로 인한 비극적 삶을 다룬 희곡이다. 작품의 제목인 '만선(滿船)'은 우리의 삶의 욕망이며,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작품 속에서 곰치는 이러한 욕망 성취를 위해 행동하고 의지를 발하는 실존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주제: 어부들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좌절

전체 줄거리: 곰치는 마을의 부자인 임제순에게 삯배를 빌려 만선의 꿈을 가지고 고기를 잡지만,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부세 떼가 몰려오지만 곰치는 임제순의 빚 독촉으로 배를 묶이고 만다. 곰치는 만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고 바다로 나가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 딸의 애인 연철과 아들 도삼을 잃고 혼자 돌아온다. 이로 인해 곰치의 아내 구포댁을 정신 이상자가 된다. 하지만 곰치는 만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 남은 어린 아들이 열 살만 되면 그를 어부로 만들리라고 결심한다. 이 사실을 안 구포댁은 빈 배에 아들을 태워 육지로 떠나보낸다. 곰치는 배를 쫓아 나가고 애인을 잃은 슬슬이는 큰 충격을 받는다. 또한 아버지가 파선으로 지게 된 빚 때문에 자신이 부자 노인에게 팔려 갈 처지에 이르자 슬슬이는 스스로 목을 맨다.

12. 박민규 원작, 고은선 극본, 「카스테라」

해제: 이 작품은 2005년에 출간된 같은 제목의 박민규 소설집에서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와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바탕으로 제작한 단막극의 대본이다.

주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한 인물의 성장 체험

전체 줄거리: 승일은 정환의 소개로 전철 푸쉬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우산과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회사에 갔다가 사장에게 야단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인턴 사원으로 일하는 현우는 너구리인 것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석현의 부탁에 컴퓨터에 너구리 게임을 설치해 주는 한편 정식 사원 채용을 빌미로 팀장에게 농락당한다. 전철에서 청각 장애인 행세를 하며 물건을 파는 미령에게 호감을 느낀 정환은 중국 친구들과 만나자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행동에 어이없어 한다. 석현은 외국인인 미령에게 보험 상품을 팔았던 것에 대해 입사 동기인 팀장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고, 정환은 심부름센터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맡는다. 배달 다녀오던 미령이 도망친 뒤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다. 승일은 어머니가 입원하고 얼마 뒤 전철에서 마주친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뒤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7년 뒤 인턴사원이 된 승일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현우를 지나쳐 뛰어 올라가고 2층에서 내려온 석현은 전철을 타려고 맞은편에 서 있는 정환과 미령을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너구리 포즈를 취한다. 사무실에서 과장이 현우는 컴퓨터를 통해 너구리 게임을 하며 옆에 앉은 승일에게 아름잡지 않냐고 묻고, 승일은 과장을 남겨 둔 채 회의실로 간다.